

7기 전여대협 운동 평가서

0. 들어가며

69년 전여대협 건론회를 진행한 후 6년 동안의 활동과 7년 진운위를 태고 풍식 출범한 전여대협 1기부터 올해 7기 전여대협 17년이라는 긴나 긴 기간 동안 여대협운동, 여학생운동의 길을 되짚어 걸어온 전여대협의 역사를 돌아보고 출간해 평가하고 싶어서 과제를 발간해 가는 계급 우리는 자발적 공부를 가리킵니다.

69년 통일여학생당을 발족하고 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을 벌여온 것.

90년대 주력세대 활동 투쟁

92년 김보은, 진진권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

95년 송금미 씨 살해 대응 특별 투쟁, 주한미군들의 근절운동본부 결성

97년 황예리 작수 구명운동, 편승권 가립

98년 7기 전여대협 진실, 생전대 문제 해결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선 대의원 합동행진, 성폭력 상담 요원학교로 확대 성폭력 근절 운동권 결, 여학생회 전 과주교류 시작

99년 생전대 문제 해결 해결을 위한 국외행진, 서명운동, 99주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99년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해임 요구 파도 투쟁

99년 11월말대 여성민중 쉼터결성, 2001년 수요집회

99년 주한미군 철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차 연대 해방 투쟁, 3186산녀군기회 앞 행진시위, 전여대협 기자회견 활동

2000년 100만 수요집회, 전여농 전여대협 여성농민학생연대활동, 전여대협 개지촌 활동, 지역별, 발대이 수요집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연말 국제법정 참가

그리고 2000년 다 되어 나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많은 여학우들에, 생애들의 기억 속을 채우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여대협의 역사를 써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해어나가고자 했던 대중들께 요구 해들이었습니다. 전여대협이 더욱 발을 활발하게 요구하는 계급, 전여대협의 역사와 지나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더욱 명확하게 그려해나갑니다. 민족사의 전환기를 개척하며 여성민중의 동대지기로 전여대협의 힘찬 깃발을 나누어해나갑니다.

1. 평가에 임하며

◆ 7기 전여대협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

1) 정세 발전의 측면에서

참으로 여기저기서 여성과 여성문제에 대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대중매체 및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까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문제가 있느냐고 우리 가정에서는 오히려 여성 파워가 더 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보도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와 증가하는 성폭력 문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위안원사조차 받아볼 수 없는 여대생들,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여성민중들은 더 어려운 길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대다수가 여전히 2중 3중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지리적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여농에서의 농성투쟁을 기억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여성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과 진쟁을 반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모임 또한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높은 요구를 받고 있는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올해 평가를 더욱 내실있게 진행하고 정세발전의, 여성민중의 자주성 실현의 촉매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2) 전여대협 운동 발전의 요구에 따라서

전여대협 건운위 6년, 이후 전여대협 활동 7년은 긴나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게 전여대협 운동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총여학생회 건설 상황이나 여남평등 문화 확산, 그리고 전여대협 운동의 정방향성 제

로 실현하는 것 등 부족한 측면이 많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여대협 운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학우 대중들이 주체가 되고 여성문제 해결과정에 앞장서야하는 것이 절실해 필요합니다. 2000년 새로운 원년이 열리고 새 세기가 펼쳐진 올해 그 평가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세기 첫 1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한 세기를 잘 설계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3) 전여대협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역사민중의 동대지기로 전여대협은 여성민중의 최방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제발전이 더욱 가속화 노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여성들, 여성민중들이 선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분배와 재국주의 지배구조는 더욱 여성해방과 역할을 고취화합니다.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더욱 많은 활동을 요구받고 스스로 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평가가 중요할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 관점과 자세

1) 승리적연 총력을 전향하자.

3) 성폭력 제소하고 혁신적점은 별자제 혁신할 것을 결의하는 자세로 평가를 전향하자.

3) 전여대협의 견당성을 그리면서 평가에 임하자.

3) 전여대협에 주어질 책사의 책무를 인식화로 평가에 임하자.

2. 총평

1) 7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해왔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결사의 요구성을 편하 연로 많은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벌여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역여대협이 많이 건설되게 많은 상황에서의 전여대협의 역사를 계속하고 혁신하는 7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하고 6.18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내었습니다. 공동선언의 여성민중에게 어떤 해대인지, 그 의행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목표로 해보고 통일주체를 계획한 것보다 6.18 공동선언 발표 1달을 앞둔, 그리고 8.15에 전여대협 대외가 반대를 펼친 것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펼쳐져 나갔던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재고교차지 활동, 역사왜곡 수필 일본외 국국주의 투쟁 운동도 반대 투쟁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을 벌여내었고 때문에 의한 학생단체 결성규정을 위한 국제법정에 직접 전여대협 대표가 참가하였고 그와 함께 개지촌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군대의 희생자 주모주권 활동 및 기자회견, 학교별로 다양한 여성문화제와 반성파에 운동, 호주제 결계 투쟁 등을 계속적으로 벌여내는 파벌이었습니다.

2) 정세 인식에 근간해 기층의 자립자활적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인식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며 투쟁을 전국적인 차원, 큰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책동에 대해 각 대학에서 다양한 투쟁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대, 동아대, 경희대에서의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투쟁이 계획되고 대중적으로 상시된 것이나 전국대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미군범죄 해결을 위한 학생법정을 만들어낸 것들은 각 대학에서 정세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에서 매우 기활을 하였던 것과 경희대, 경기대, 홍익대에서 여성문화제를 하며 새운터 후원주점을 한 것은 기층의 자립자활적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세인식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고 정세인식에 따라 재빠르게 사업과 투쟁을 벌여내는 과정에서도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큰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데에서도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 보호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나 성매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등 여성정세에 대한 빠른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에 따라 기민하게 계획을 세출·활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에 맞서서, 호주제 폐지 운동에 있어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전일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3)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 지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여대협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층의 의견수렴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기층과 전일적으로 합의 사토보는 과정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기층의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기층의 준비정도를 꾸준히 높여내며 전여대협 전체적인 차원과 기층의 사업투쟁이 전일적인 흐름으로 모아져야 함에도 일정 전여대협의 사업계획이 기층에서 취사선택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출된

7기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원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2월 19일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실에서

안건

0. 단위총화

1. 7기 전여대협 평가
2. 8기 전여대협 간부 임명
3. 뒷풀이 및 결의대회

제 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 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 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 16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 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 조직구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 24조 (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안녕하세요? WAW회원 여러분, 마스터 정경아입니다.

오늘 12월 9일 일요일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1층 회의실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WAW활동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모임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WAW에 대한 비판,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셨습니다. 아래에 논의된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논의는 12월 14일(금)요일까지 온라인에서 회원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조순경, 박목우, 홍시내, 정도, 이새롭, 타리, 박하, 이현숙, 파인, 박통, 에림, 이영, 조석순애, 장임다혜, 백영애, 이양원, 시타, 정경아, 정면 이상 19명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들>

1. 모임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 지금까지 모임의 운영원칙은 회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모든 행사나 일정을 오프에서 그때그때 결정,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내부비판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공식화되지 않은 모임운영의 문제

: 특별한 의사결정구조 없이 오프에서 모든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한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만 발언권을 갖게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중간에 참여한 신입회원들은 초도모임부터 함께 한 사람들과 달리 모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모임운영원칙이나 참여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이지요.

(현재로서는 개인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판을 일일이 보고 모임의 흐름을 파악한 사람이 자신의 활동범위나 참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지요.)

결국, 오프에 나와 발언권을 갖는 사람만이 활동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서 어디에선가 의사결정구조나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투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와 자료, 팀별활동에 대한 소개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누구나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1.2 자발적이지만 우연에 맡기는 모임 운영방식의 문제

: 지금까지 2달 남짓한 활동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매우 기동성있게 움직여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우연적인 후원에 의존해야 하고, 의사결정구조나 책임구조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던 회원이 갑자기 사라져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구조라 할 수 있지요.(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모임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 기초하되 우연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3 의사결정구조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 현재 팀별 활동은 소그룹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되고 있으나 이러한 팀을 묶을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없음으로 인해 팀에 생기는 문제, 팀 내부의 활동수준 등을 조율해야 할 때 누구와 의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회원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는데, 회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전쟁반대 여성행동에서 연대제안이 왔을 때나 백두산 회원의 탈퇴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상에서 잘 논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오프모임에서 결정이 되곤 했습니다. 즉, 활동단의 실체가 불분명해지면서 모든 결정은 간헐적인 오프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멀리 있거나 오프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틀 논의

:모임운영방식에 대한 평가 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식화된 의사결정구조를 갖되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1 실무자(간사 또는 상근활동가)의 필요

: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전쟁반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WAW 활동을 정리, 조율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WAW의 활동회원과 함께 결정해 나갈 것이며, 적어도 WAW의 재정자립을 통해 실무자 임금을 주는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2.2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활동회원 모집

: 온라인 상의 회원들 중에서 지속적인 회원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중심으로 활동회원을 모집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420명의 온라인 회원 중 어느 정도까지 활동회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공유를 통해 활동회원을 점점 확대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면, WAW의 회원활동은 회원의 조건과 참여 수위에 따라 다양화되는데,

구체적인 참가방법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1)활동회원: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의사를 밝힌 회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활동회원이 갖는 권리는 의사개진, 의사결정권이며,

정기모임 참석과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정기모임은 약 1달에 한번,

회비는 최소 5000원에서 5만원 이상 등 다양하게 납부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 모든 활동회원은 회비를 자동이체해야 적어도 상근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온라인 회원: 커뮤니티의 정회원들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회원입니다.

언제라도 활동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활동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후원회원: 모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건상 활동회원으로서는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나,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입니다.

3. 내부 의사소통 및 토론이 잘 되지 않는 문제

: 모임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온라인 상에서 의사소통 및 토론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 되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건널 목 시위, 영상채 등 활동이나 행사에서는 비교적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내부 의견을 조정하거나 토론이 필요할 때는 그리 활발한 논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첫째, 글을 통해 의사를 개진하거나 토론하는 훈련이나 연습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둘째, 전쟁과 관련한 논의가 기존에 남성중심적인 쟁점이나 사안이므로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셋째,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모르는 모임운영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쟁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모임운영방식의 문제에서 절차상의 문제,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인간에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WAW의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모임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같은데 무언가 정리되지 않는"문제, "WAW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분명하지 않네" 이런 생각들을 모아내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WAW토론회를 1월 26일쯤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토론회는 기존의 토론회나 심포지움처럼 전문가나 대표자가 주제발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WAW회원들이 충분한 준비와 논의과정을 통해 꾸려지는 시민회의의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즉, WAW 회원들이 소그룹과 같은 팀을 몇몇 개 꾸려, "여성주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의 의미" "미국의 전쟁 움직임이 북한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 내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나 참가자에 대한 얘기는 미처 하지 못했지만, 일단 온라인 상에서 토론회에 참가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누구나 고등학교 정도의 문자해독능력과 성실함이 있다면 이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WAW의 구체적인 입장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있는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혜경 입니다.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생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WAW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할 수있는 역할들을 기꺼이 하고 있음을 바라 보면서 분노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음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 여성과 전쟁에 관한 노래를 담으려 합니다.

미나의 시<우리는 되돌아 가지 않는다.>

그리고 박목우(lifescence)님의 <푸른비가 내리는...>을

가사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사를 더 기다립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7기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원회 회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2월 19일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실에서

안건

0. 단위총화
1. 7기 전여대협 평가
2. 8기 전여대협 간부 임명
3. 뒷풀이 및 결의대회

제 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 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 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 16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 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 조직구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 24조 (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전여대협 중앙 실무단(알프 대장님, 권해효 실무단장, 왕언니 교양주체)에서 전여대협 7기 통선대의 활동에 대해서 28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1. 임무와 역할

- 여성민중들이 통일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며 2000년 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하여 통일을 일구어나가는 임무와 역할을 가진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자, 농민, 학생이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여성통일한마당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2000년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고 전체 통일운동을 복무하는 임무와 역할을 가진다. 이와 함께 나서는 과제인 6.15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거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 전여대협 7기 통일선봉대 대원들의 단련, 자기문제 극복, 혁신의 장으로 되도록 하는 임무와 역할을 가진다.

2. 구체적 평가

1)규율 사수

- 성과 : 대원들의 규율사수의 의지가 많은 부분 있었다, 대열정비나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극복되는 모습으로 발전해감.
- 교훈 : 조직적으로 규율을 강제하는게 부족함, 규율을 기간내내 마음속에 담고 직시하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개인적 모습 조금씩 존재, 시간엄수규율 부분 미흡

2)동지에 발현

- 성과 : 개인적으로 대원들의 동지에 발현모습 아주 많이 존재함.
- 교훈 : 동지에 발현을 조직적으로 총화하고 모범으로 승화시키지 못함, 비판과 칭찬을 함께 들이밀지 못한 부분, 동지들의 고민을 허심하게 듣고 토론과 논의 속에서 나타내지 못함.

3)교양 평가

- *참고-전여대협 교양 진행 : 일본군위안부문제 3자연대해결, 통일과 여성, 북한의 여성
- 성과 : 시간내서 진행하려는 노력이 컸다, 중앙교양이 시기적절히 진행되었고 통일일군으로서 의지 높여나가는 교양시간,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짚짚이 다 배웠다는 큰 성과, 실천투쟁과 함께 학습의 중요성을 높임.
- 교훈 : 토론의 부족으로 자기것화 되지 못한 한계, 전여대협의 특수한 실천활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풀어지는 한계가 있었음

4)실천투쟁

- 성과 : 시민만남이나 실천투쟁(몸싸움)에 있어 가장 선봉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전개하였다, 대중관에 있어 책임감 드높아지면서 대중관을 확고히, 전대원이 다른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주체적으로 술선수범하는 모범을 창출, 내실있는 선전준비(플팅, 매일 소자보 작성, 유인물작업, 서명운동작업, 울동을 함께한 선전, 전체대원 아지하기 등)
- 교훈 : 여성민중의 만남 고민 부족, 시민들의 의견이나 말을 듣는데는 부족

5)중앙과 소대의 조직운영

- 성과 : 중앙간부들의 모습이 많은 자극
- 교훈 : 중앙과 중대의 총화부족, 일정의 발빠른 진행 부족, 그때그때 평가 못한 지점,우리중대내에서 회의가 중간에 소멸되면서 사통을 보지 못한 지점, 전체 대원들을 총화하고 문제지점을 극복하는데 조직적 논의 부족.

6)특수중대인 전여대협 통선대로서

- 성과 : 여성민중을 먼저 만나나가는 부분, 8월 2일 수요집회 참가 큰 성과,
- 교훈 : 전체통선대로만 고민했던 한계, 특수중대로서 큰 역할이 부족하여 투쟁내용에 있어 큰 기초설정 부족했고 전반적인 실천부분(서명운동처럼)이 부족했다, 적극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해 논의, 토론이 전개되지 못했다.

3. 전체적으로 성과, 교훈지점

- 성과 : 대원들에게 큰 결의와 신심으로 커갔다. 주체적 실천투쟁을 전개하면서 통일에 일조했다는 자신감 얻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해결은 안됐으며 고민을 풍부히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교훈 : 새내기와 기층 과여부장들의 조직화가 많이 되지 못하는 준비과정이 부족했다, 특수중대로서의 투쟁내용에 있어 큰 기초가 설정되지 못한 문제, 전여대협 중앙실무단의 준비가 많이 있어야겠고 중심이 있어야겠다,